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도가 깊을수록 평범하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남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만 어떻게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남쪽에 가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발견하였거든 급히 달려서 지나가라. 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도 머물러서는 안 돼.”
학승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버립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버드나무의 숲, 버드나무 숲.”

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마치 버드나무 숲처럼 스스로 자유로워져라. 나중에 조주 스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세 치 혀에 의지하지 않아도 역시 지금[今時]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의 말에 따르면 자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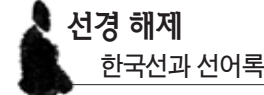
든 것을 떠난 초인이 된다면 우주를 관통한 대인(大人)이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끝없는 우주에 사람이 수수히 많아.”
학승이 말했다.
“청컨대 노스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대답 없이 있어야 해.”

問 學人擬向南方學些子佛法去如何 師云 你去南方 見有佛處急走過 無佛處不得住 云 與麼即學人無依也 師云 柳絮柳絮

현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현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현재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사 현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현재를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단 한 번도 정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마음, 근원 사람 마음 진리 등 중요한 단어에 대한 것들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분명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사가 복잡해져 가는 것이다. 이들이 허망한 것임을 파악하고, 이 모

도가 깊어질수록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다. 고풍적의 단어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평범한 노인들의 말만 오고 간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열반경

열반과 불성을 담은 경전

열반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이다. 그런 만큼 열반은 인간의 완전한 이상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석존의 열반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전경이다. 그 열반의 바탕에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 불성은 그와 같은 열반에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이 석존의 열반을 통해서 발견해 낸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고 가장 이상적인 원리였다. 따라서 연기법이 석존의 정각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석존의 열반이 창출해 낸 결과는 불성의 사상이었다.

석존의 열반은 불교교단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아울러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석존의 열반은 이전까지의 열반과 이후의 열반의 개념이 가장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이전의 열반 개념은 늘상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해 그 원인과 과정과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써 불도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열반개념은 모든 사람들과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체의 유정 무정에 이르

고 제법무아라는 불멸상주의 실체가 없다고 설해져 있다. 그러나 <대승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는 출세간의 상주불멸하는 불성이 있다고 설해져 있다.

<대승열반경>은 최초 부분에서 불타는 대선전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설한다. 불타의 열반은 소위 죽음과는 달리 수명이 무량하여 유구불멸하다고 설한다. 그리고 불타의 신체는 상주불괴하고 불타의 언설은 진리이다. 이 두 가지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불타는 인제나 중생의 곁에 있으면서 보살피주는데, 그 남겨놓은 진리의 말씀을 암기하고 염송하며 서사하면 우리네 몸에 불타의 공덕이 터득된다고 가르친다.

경전의 중간 부분에서는 아사세왕의 병과 고뇌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가 불타를 만나고 설법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불타의 설법에 감명을 받고 반성을 하며 열반이라는 독나무에서 전단수의 싹이 트는 것을 비유하고, 포박한 마음이 없는 자신에게 이제는 불타에게 귀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경전에서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 만들어 낸 불가사의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의 중간 부분에서는 열반에 대하여 계속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갖가지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불성에 대해서도 갖가지 비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열반경의 핵심사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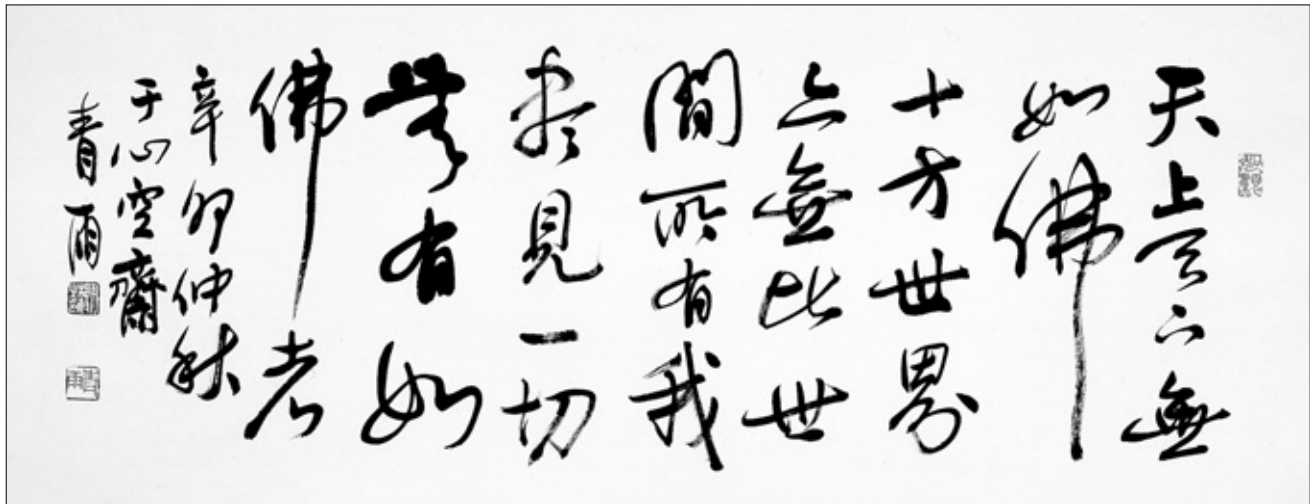
불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도 실천해야 하고, 불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와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리고 불성의 소재에 관한 설명에서는 인중유과실·인중무과실·중연화합설에 대하여 설명한다. 경전의 끝 부분에서는 어째서 쿠시나 가라에서 임종을 맞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행 도중에 병에 걸리는데 그 장소가 쿠시나가라에서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쿠시나가라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불타가 일찍이 바라문과 대론했던 내용을 길게 설명한다. 특히 아트만에 관한 선니외도와의 대론은 불성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다.

<열반경>의 가르침은 열반과 불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열반의 속성으로는 법신·반야·해탈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나아가서 상·락·아·정의 네 가지 덕성은 각각 삼바라밀·락바라밀·아바라밀·정바라밀 등 사바라밀다로 설정되어 있는데 네 가지 고·공·무상·무아의 사전도행을 물리치는 개념이다. 불성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총체론·인과론·경선론·유무론·삼세론·회통문의 6가지로 분별하여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열반경>이 보여주는 선법의 요소는 대단히 풍부해 달라로부터 해능에 이르는 초기선종에서 <유마경> <반야경>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의용됐다.



김국희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석가모니 찬탄 개송



천상민하무불 무진간역시 여천상민하무
우심공중유 일유비세 자여체아세계

亦: 또 역
比: 견줄 비
盡: 다할 진
切: 온통 체, 끊을 절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부처님 같은 이 없네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이 없으며 시방세계에서도 또한 비교할 사람 없네.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둘러보아도 그 무엇도 부처님 같은 이 없네. - (치문)

분한신고 안내

- ① 기 간 : 2011년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 ① 접 수 처 :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① 신고요령 및 절차
 1. 신고인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총무원에 제출한다.
 2. 총무원 총회, 원로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3. 총무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① 준 비 서 류

승려 및 분한신고서 1부, 서약서, 주민등록증등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승려증 사본 1부, 구 사원등록증, 구 주지 임명장, 사진 5장, 학력,경력 증명서류첨부, 이력서 1부 (서류경비 10만원)
- ① 유 의 사 항
 1.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중도는 자격정지, 탈종, 고유번호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한 신고기간 후 본 중단에 앞서 발행한 모든 증명서류는 효력 상실되오니 기간안에 중도님들께서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담금 및 제반 공과금 미납시 신고 및 접수 불가 합니다.
 4. 제반 사항 하자시 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2011년 11월 11일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총본산 백봉사 전화 : 1577-1016

총무원장 대봉 합장

경 고 문

(사)한국불교 조계종

상기 명칭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4호 전사련 법인으로 등기된 명칭이오니 무단사용하거나 도용하면 민형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합장

研究 및 受講生 모집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강 의 합 니 다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약 효능 안내

기효만령단 (奇效萬靈丹)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통, 근육통, 골절통, 편두통, 좌골신경통, 자궁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환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약성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 등
안중산(安中散)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창이환(蒼耳丸)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호마산(胡麻散)	백전풍, 백나병, 백반증
익수환(益壽丸)	당뇨, 정력,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청보환(淸補丸)	신종플루,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생간건비탕(生肝健脾湯)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소풍산(消風散)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액, 부인혈풍두양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飲)	심장 신장 기능 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신효과무산(神效瓜蒌散)	유방암, 유선염
팔진탕(八珍湯)	임신구토, 임신진혈
귀비온담청마탕(歸脾溫膽淸麻湯)	현훈(眩暈),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쇠약
총명익기탕(淸明益氣湯)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膿), 정신상해, 식욕증진, 오로칠상 허손(五勞七傷 虛損), 간상(肝傷), 지매, 냉누출(冷淚出), 양기부족
항암식품(抗癌食品)	오백산(五白散), 강유탕(康楡湯)

(참고문헌 : 東醫寶鑑)

문의 : 慈悲會 02)722-4848 / 010-2538-7789